



Economics of Information: criteria for counting the cost and benefit

## 情報經濟學：그 費用과 利益의 算出基準\*

李 淸 子 譯  
(KORSTIC 資料部)

—이 論文은 1979年 9月 18日부터 21日까지 Sussex 大學에서 開催되었던 第53次 Aslib 年次大會에 提出되었던 것이다.

情報은 資本이나 勞動力 또는 有効質物과 同等한 次元에서 다루어져야 할 經濟的 資源이다. 問題는 經濟的 價値를 決定하는 基準인데, 다시말하면 資本生産, 資源開發, 勞動力 利用 結果로 얻는 經濟的인 利得에 比較할만한 情報의 經濟性을 어떤 基準에 의하여 測定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研究에서 提案하고 있는 基準은 다음과 같다. 情報가 利用 價値(value)가 있는가? 費用(cost)에 비하여 效果的인가? 明細書(specifications)는 正確한가? 이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問題는 價値를 測定하는 基準인데 本論文에서는 可能한 限 近似值에 가까운 接近을 試圖하여 보았다. 效率性은 情報의 質과 量을 正確히 規明한다면 매개변수(parameter)로 그 測定이 다소 容易하다. 그러나 이들 基準은 明確히 設定되었다 하더라도 施行上의 問題는 남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試圖한 提案은 基準 自體는 상당히 主觀的인데 반하여 管理調整의 效果를 摸索하고자 하는 것이다.

### 基本原則

情報은 資本이나 勞動力 또는 有効質物과 同等한 重要資源으로 마땅히 취급되어야 한다는 前題를 始發點으로 한다. 國家의 産業政策은 有用한 資源을 效果的으로 開發시키는데 基本을 두고 있는바, 一사우더 아라비아는 石油資源을, 日本은 勤勉한 國民을, 獨逸은 信用과 資本을, 그리고 英國은 知識과 情報를 産業政策의 對象으로 삼고 있다. 不幸하게도 이 메시지는 아직 効力發生 領域 내에 到達하지 못하여 모든 會社가 財政이나 人事擔當 重役들을 가지고 있고, 또 대부분

技術理事나 資材, 購買幹部를 두고 있으나 情報擔當理事를 가지고 있는 會社를 본 적이 있는가?

情報의 經濟性은 資本生産이나 勞動力 利用으로 얻는 報酬와 同等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油田에서 나오는 物質的인 經濟性은 너무나 分明하다. 이 當爲性에 基礎를 둔 Arrow와 Demsetz의 對照的인 論議를 우리는 Penguin Reader에 나란히 수록된 情報과 知識의 經濟學 記事에서 찾아 볼 수 있다.

情報價値의 改善을 위하여 그 費用과 利益을 產出하는 몇가지 基準을 設定할 필요가 있다. 情報經濟學은 그 歷史가 짧아서 資本이나 勞動經濟學처럼 Adam Smith나 Karl Marx로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좀더 有益한 調査를 하기 위하여 上述한 Penguin Reader의 序文을 보자. 最近에는 良質의 情報가 大量(이 論文을 포함해서) 生産되고 있다. 물론 상당량이 重複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하여 Urquhart는 “現代는 情報流通에 있어서 經濟的인 研究의 經濟性에 대한 研究를 支援할 때...”라고 대단히 적절한 論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서 提案하고 있는 것은 經濟學者의 觀點에서가 아니고 一線 情報實務者로서의 試圖임을 말하여 둔다. 最初의 質問은 “이 作業이 얼마나 效果的으로 수행될 것이나?”가 결코 아니고, “어떻게 수행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이다. 그 첫째 基準은 ‘利用 價値’를 測定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價値判斷基準을 定하는 것이 우리가 直面한 가장 어려운 問題이다.

두번째 質問은 (만약 價値가 있다고 認定된다면) 效率的으로 處理될 수 있는가?

셋째는 明細에 관한 것인데 여러가지 면에서 이것이 첫째 質問이 될 수 있다. 원하는 것이 어떠한 情報의 서어비스인가?

위의 順序가 뒤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價値나 効率 또는 明細는 자기 獨立的인 變數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 ‘價値’는 그 質과 量이 明細된 情報를 輸入하여 利用함으로써 그 過程上의 效率性 對 費用을 測

\*J.B. Wilkinson. Aslib Proceedings, Vol.32, No.1, 1980, pp.1~9.

定하는 것을 意味한다.

‘効率性’이란 예상되는 經濟價値를 가진 明細화된 情報要求를 처리하는 能力을 말한다.

‘明細’란 원하는 情報價値를 生産하는데 필요한 情報의 量과 質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效果的인 作業을 통하여 그 費用이 充當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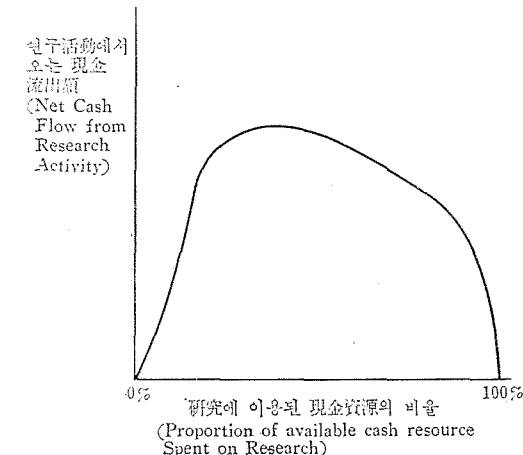
價値(Value)

經濟學에 있어서와 같이 價値의 測定은 가장 異論이 있기 쉬운 것이다. 이것은 비단 情報分野에서 뿐만 아니라 內·外部 업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研究에 관하여 이야기한다면 著者は <圖式 1>처럼 曲線上에 아무 標識도 되어 있지 않은 우리에게 익숙한 커브를 자주 利用하고 있다. 研究를 하지 않으면 물론 아무 費用도 들지 않고, 따라서 부산물도 없다. 會社의 財源을 다 支出할 정도의 研究를 하여야 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利益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圖式 1>의 曲線 가운데 어디쯤에 費用對 利益의 最適點이 있다. 上位部分이 平平한 이 曲線上의 左側으로 가장 가까운 點이 곧 우리가 찾는 經濟的인 研究를 實驗할 수 있는 管理上의 判斷點이 될 것이며, 이 點을 그림에서 指摘하기는 곤란하다.

市는 훌륭한 監査節次를 통하여 얻는 價値를 크게 認定하여 數次 監査過程의 改善에 관한 行使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內部的 監査價値를 어떻게 換算할 것인가? 이와 類似한 例로 철도나 버스 그리고 非經濟的인 이나 상당한 社會價値를 가지고 있는 航空서비스의 重要性은 또 어떻게 測定할 것인가?

情報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圖式1>의 曲線 左側 끝을 보자. 圖書館이나 情報서비스 機關이 없는 곳에 情報提供에서 얻을 수 있는 利益이 있을 수 없음은 당연하다.

圖式 1 : 研究에 드는 費用



英國의 總資源이 모두 情報化되었다면 누가 商品을 製造하며 社會的인 事業을 經營하겠는가? 研究를 할 경우 이 메시지는 ‘上位가 平平한 曲線 左側 끝을 維持’하라고 당부한다. 우리는 事物의 값은 알면서 價値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신이 비교적 적게 일하면서 現在 살고 있는 社會(國家, 會社, 大學 등)에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어떤 形態의 投資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마치 特種 포카 게임에 반드시 걸어야 하는 Ante(先金)과 같은 것이다. 社會(國家, 會社 등)가 그 이상은 提供할 수 없는 點 그것이 最高의 作業限界가 된다고 보면, 이 두 限界 사이에 우리의 判斷基準이 서게 된다.

이것은 一般의인테 반해서 價値基準은 또한 主觀的인 면이 많다. 이 問題를 신중하게 分析한 Flowerdew와 Whitehead의 OSTI 報告書는 좀 더 具體하게 作業을 遂行하는데 重要한 意味를 준다.

우선 內部的 職員을 위하여 情報를 提供하고 있는 어떤 機關의 例를 들어보자. 機關 내에 提供하는 情報는 물론 價値基準에 相當할 것이며, 産業이나 商業界의 有益한 機會와 닥쳐올 危機에 잘 對處할 수 있다. 政府部署는 政治的 社會的 用語로 暗示的인 方向을 나타낼 수 있었을 것이다. 情報는 그것이 自體生産이든 公共資料로부터 選擇, 組織한 것이든 營利的인 機會를 마련하여 줄 때 그 價値가 큰 것이다. 營利的 目的을 達成하려면 正確하고 完全하고 時間에 알맞아야 한다. <時間을 要하는> 當局의 管理行政과 利用者側의 時間性 사이에는 差찰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折衝基準이 摸索되어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이 情報를 利用할 수 없었다면 會社는 先權을 획득하지 못하여 利益을 낼 수 없었을 것이라든가, 이 情報가 아니었다면 會社의 큰 損失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최고의 말을 듣는다.

經濟上의 危機가 닥쳐올 경우에도 競爭者의 動態를 미리 파악하고, 法規, 明細書 및 實用 코우드의 改訂 등을 미리 判斷하여 이에 대한 公報活動과 더불어 豫防策을 마련할 수 있다. Stiglitz가 1975年 發表한 바와 같이 “情報는 事業計劃을 變更시킬 만큼 有力하다.”

情報의 價値를 값으로 換算하는 것은 적합한 情報를 얻지 못했을 때 산출되는 예상액을 比較함으로써만 可能하다. 그 하나의 基準은 ‘그 情報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에 서게 되었을까?’ 또 다른 基準은 繼續的인 利用성과 追加費用을 들이지 않고 다른 方向으로 利用시킬 수 있는 有用성이다. 이 點이 Whitehead의 基準과는 對照的인 見解이다. 情報서비스의 價値는 비단 갑자기 닥치는 危險을 處理하거나 營利를 얻을 수 있는 좋은 機會를 마련하는 能力面에서만 認定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 올 예기할 수 없는 어떤狀況에 對備하여 詳細하게 展望하여 줄으로써 繼續的인 利用 價値를 주는 데 있다.

外部의 情報利用價値는 입수가 쉽든 어렵든 同一하게 重要하다. 規模와 經費에 相關 없이 大學이나 工業 技術學校에 圖書館이 없다면 그 運營이 可能할 것인가 (White가 引用한)? 그 Raffel과 Shisk의 의하여 展開된 '利益評價調査'는 이외의 價値測定의 다른 事例에 대한 또 하나의 方法論을 시사한다.

地域社會는 公共情報소오스를 願한다. 市民을 위한 民願事務所 그리고 公共圖書館의 價値는 얼마나 큰 것인가? 會社의 名聲이 널리 알려지는 것은 會社의 營利를 위하여 어느 정도로 有益한 것인가? 教育, 삶 그리고 株式配當에서 價値를 除外시킨다면 무엇이 남겠는가? 未來가 心然의으로 要求하게 될 어떤 機會를 알 수 있는 적절한 資料는 없을까?

그러나 公共事業은 損益을 직접 管理하는 財務機能을 직접 行使할 수 없기 때문에 公共事業으로서의 長點보다는 問題가 더 크다. 항상 豫算削減의 우려가 따르고 經常費는 오르고, 통화는 팽창이 됴으로써 配當된 豫算은 다 써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것은 항상 不利한 結果를 招來하기 때문에 効率이나 明細와 함께 다루게 되는 엄격한 價値基準의 測定을 困難하게 만든다. 公共事業의 永遠한 宿題가 바로 이것이며, 教育, 體育 등 기타 分野에서도 이 問題는 同一하게 適用된다고 본다.

**効率性(Efficiency)**

價値測定結果 利益을 주는데 必要한 情報서비스의 經費가 年  $\$X$  예상액에 달한다고 가정하자. 最大限의 効率的인 서비스를 提供하는데  $\$X$ 가 드는 것이다. 英語로 効率(Cost per Unit)과 効果(Value per Unit)의 差異는 잘 區別될 줄 믿는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은 때때로 非効率的인 運營이 상당히 效果的이고, 効率的인 管理가 非効果的인 結果를 가져 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企業全體의 利益을 目的으로 하는 管理上의 調整이 必要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 두 가지 형태의 基準을 마련하였다. 첫째 情報節次에 대한 內部管理上에 관한 基準인데 專門家의 判斷으로 比較의 직접 接近이 可能하다. 훌륭한 會計의 예로서는 Kunz 등을, 그리고 有用한 論文으로는 Blick를 보라. 公共圖書館이나 學術圖書館은 價値測定을 유도하는 시범 파라미터로서 수시로 단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効率測定에 대하여는 잘 研究하고 있다. White는 이러한 技法에 대하여 有用한 調査를 하였지만 어떠한 統計의 接近도 情報의 質을 완전하게 測

定하거나 利用者에 대한 情報의 價値를 正確하게 表現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理由 때문에 經濟性의 測定을 機械的인 要素로부터 價値測定 方向으로 엄격하게 分離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

두번째 유형의 基準은 利用者에 의한 効率性에 關聯된 것으로 이것은 效果를 基準으로 삼는다. 利用者에게는 時間的인 要素가 重要하다. 要請을 받은 文獻은 그것이 一般出版物이든, 特許證, 法律條文이든 적은 費用으로 利用을 可能케 하여 內部的인 効率基準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너무 늦게 利用者에게 到着하여 利用할 수 없었다면 이 서비스 運營은 非效果의이 되고 만다.

利用者の 満足度는 內部利用者の 경우에 쉽게 알아 낼 수 있다. 그러나 外部의 利用者は 다소 어렵다. 이것은 또 하나의 公共事業의 問題性이 되는데 상당히 網羅的인 國家統計라 하더라도 그것을 뒤 늦게 입수한다면, 歷史家의 統計價値보다 더 쓸모가 없게 된다. 이 경우 公正性, 完全性은 效果 對 迅速性을 커버하는데, 効率性 간의 差는 어느 곳에서도 不分明하다. 利用者 不滿의 예는 BSI에 의해서 꾸준히 調査되어 왔는데 Aslib/CBI 分科會議 역시 이 問題를 繼續的으로 다루어 왔다. 또 다른 예가 H.M. Stationary Office에 의해서 提供되었는데, 이것 역시 Aslib/CBI 分科會議에 關聯된 것이다.

効率測定基準 사이의 差의 예는 또 있다. 內部的 効率測定은 고도의 電算化된 統計調査資料를 요하는데 이것은 빠르고 非電算化된 사람들에 의하여 기초자료가 作成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結果는 不正確하고 不親切한 대우를 받게 된다.

**明細(Specification)**

당신 圖書館이 世界에서 出版된 모든 資料를 다 所藏하고 있다면 明細를 만들 必要가 없다. 또 당신이 아주 選擇된 特定 그룹에 속하여 있지 않는 한 英國出版物 조차도 다 취급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부유한 會社라 하더라도 世界, 아니 歐洲의 모든 데이터 베이스 조차와도 온 라인 接觸을 가질 必要가 없다. 情報의 經濟性은 豫想價値를 提供하는데 必要한 포괄적인 서비스와 情報의 特性을 적절히 糾明하는데 달려 있다고 본다. Ashworth는 Aslib Annual Lecture에서 이 領域을 훌륭하게 다루어 냈다.

일찍이 研究管理와 政策上의 問題가 比較되었던 적이 있는데, 比較란 여기에서 가장 적절하게 利用된다. 經濟的인 研究管理의 重要性은 協助的인 政策樹立과 이 政策을 施行하는데 필요한 研究課題의 定義를 내려 주는 데 있다. 經濟的인 情報管理의 重要性은 이 政策

과 研究課題 決定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그 基準은 무엇인가? 情報要求를 당장에 100% 充足시켜줄 수는 없다. 明細는 要求情報의 대부분이 지연되지 않고 合理的으로 利用될 수 있게 作成되어야 한다. 어떤 機關에서는 明細를 여러가지 方法으로 說明·作成할지 모르나 항상 情報管理에 한해서는 協同的인 決定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化學文獻을 利用하고자 하는 部署를 생각하여 보자. 제외되어서는 안 될 여러가지 자료가 있을 것이다.

- 關係雜誌 購讀(몇종? JCS, JACS 등)
- Chemical Abstracts 購讀(기간호도 사는가? 가장 중요한 것 등)
- Chemical Abstract의 온라인 상담(UKCIS?)
- Chemical Society의 Science Reference Library에 상담을 請하시오.

당신 圖書館의 hardcover 所藏은 어떻게 明細化하고 있는가? SDI 서어비스는 有効한가? 이 외의 서어비스도 필요한가? 利用者는 항상 最新情報가 수집되는 대부분의 定期刊行물을 읽고 있는가? 情報의 量(coverage)와 質(speed & manner of delivery) 양쪽의 서어비스의 明細에 관한 最高經營政策이 수립되어 있는가? 價値測定을 利用하여 最高經營을 하려면 꼭 필요한 곳에는 經費를 써야 한다. 그리고 情報管理은 明細된 일을 效果의으로 遂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決定은 원칙적으로 해야 하며 임시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먼저 언급한 바와 같이 繼續되는 價値基準에도 고려가 따라야 한다. 그리하여 明細는 예산에 적합하게 만들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價値와 効率基準 設定에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것은 다소 우회적이지만 情報의 經濟性 測定에 있어 이들 要素는 相互關聯性을 強調하기 위하여 窒礙 고려된 것이다. 어떤 基準도 다른 基準과 상관 없이 獨自的으로 存在할 수는 없다.

外部의 利用者를 위한 情報의 明細書 作成은 특별히 要領을 요한다. 왜냐하면, 情報의 限界를 한눈에 보이게 하여서는 안 되니까 “一般人이 알아야 할 權利가 있다”고 말을 말한다. 열차시간표를 생각하여 보자. 國內서 利用에 重要한 이 時間表를 作成하는데는 高度의 技術과 科學的인 調査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 完成이 된 후에도 분명히 그것은 公共의 所有物로 配付된다. 市場性이 있는가? 아니다— 除限된 無料配付가 地方單位로 있을 뿐이다. 그러나 電話加入者는 無料의 地方案內書를 가지게 되며, 그리고 모든 담세자는 British Rail의 購讀者가 自動的으로 된다. 그러면 우리는 無料 地方時間表를 가질 수 없단 말인가? 생각이 이런 方向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限界를 發見하거나 또는 追加配付에 따르는 追加費用 對 追加利益을 찾아내는 方法은 어렵게 된다. 이와 類似한 問題는 市民의 警告, 消費者 告發, 教育問題 등에서도 얼마든지 생긴다. 이 問題는 또한 Whitehead에 의하여 잘 다루어진 것이 있는데 그는 ‘費用은 누구에게 利益은 누구에게?’라는 質問을 提起한 바 있다.

첫째도 신중한 政策決定의 必要性이요, 마지막도 政策決定의 再考의 必要性은 皮할 수 없는 오늘의 問題이며, 이것은 또한 相互基準 간의 調整의 한 部分이 되기도 한다.

### 管理·調整(Control)

‘情報의 費用과 利益을 算出하는 基準’이 있어도 이것을 利用하여 어떤 效果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쓸모가 없다. 여기서 그 어떤 效果라는 것은 管理 經營上의 調整을 意味한다. <價値> 對 效果, <費用> 對 效率 그리고 <支持: 訂正間의> 明細, 이 어느 것에나 調整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情報管理上에 壓迫을 가하는 것은 財政과 人力難이다.

圖書館 運營에 드는 經費가 增加됨에 따라서 教育機關들, 특히 擴張하거나 새 分野를 開拓하고자 하는 機關들은 심각한 進통을 겪고 있다. 總豫算의 5%를 高等教育에 配當하였는데 財政難 때문에 이것이 낮은 비율에 속하는지 높은 편에 속하는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어떤 工業技術學校의 個人所見을 紹介한다면 皮할 수 없는 變化로부터 오는 財政的인 壓迫은 더 이상 冷酷한 經濟性 算出을 無意味하게 한다.

産業研究機關에서는 情報서어비스를 위하여 豫算의 3~4%를 割當하고 있다. 歐洲의 産業經營研究協會에서 引用한 수치는 平均 3.3%이며, Blick는 그의 會社가 4%를 情報서어비스에 配當하였다고 報告하고 있다. 물론 이 産業用 豫算도 다른 分野에서 처럼 削減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公共圖書館도 해당 地方行政當局 豫算의 約 2%를 쓰고 있다. Surrey 公共圖書館을 그 例로 引用한다면, 1974/5년에 200萬파운드가 넘었는데 이것은 教育費 全體의 2.5%이며, 그 地方歲入의 73%에 해당한다.

이러한 막대한 金額은 正常的인 經營體系로서도 調整될 수 있다. 價値가 增加되고 있을 때에는 특히 調整은 絶對적으로 필요하다. 支出增加에 따라 價値增加는 얼마나 커졌는가? 資金支出內容을 살펴보면 가려진 細部나 無理한 支出이 있는 곳을 發見할 수 있고 여기에 좀 더 세심한 調整이 可能하다. 支出行爲에는 값을 정하고 신중하게 고려하여 判斷하고 執行하는 時間이 필요한데, 이것이 야말로 실제적인 調整作業이라

할 수 있다. 管理面에서 심사숙고 없이 情報를 活用한다면 效果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던 情報價値의 우선순위는 맨끝에 올 뿐만 아니라 施行目錄順位 最下에 놓이게 되어 結局 目的을 達成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情報機能의 位置를 向上시키는데 最善을 다하는 탄면에, 이에 相應한 對遇를 받을 만한 상당한 管理者로서의 證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그 하나의 方法으로 經濟的인 基準을 마련, 利用하는 것이다. 情報經濟性의 基準은 아마 客觀的이기 보다는 主觀的인데가 많은데, 基準을 더 자세히 만드는 것 보다는, 이것을 資金流出과 投資에 대한 補償과 같이 財政的인 基準으로 集約함으로써 經濟的 價値判斷을 可能하게 하는 것이다.

그 實例로서 다음과 같은 設問이 作成될 수 있다.

**A. 價値의 基準**

- 장래의 必要한 것을 豫報하여 주는 적절한 자료 있는가? 계속적인 必要性이 있는가?
- 자료의 不足 때문에 營利를 위한 좋은 機會를 놓쳤거나 닥쳐올 威脅을 豫防하지 못한 적은 없는가?
- 이것은 얼마의 費用이 드는가?
- 유익한 情報 때문에 商業上 좋은 機會가 생겼거나 危機를 모면한 때가 있었나? 이것이 해당기관에 준 價値는 얼마나 되는가?
- 특히 社會的 價値를 가진 情報은 外部에서 配付된 것인가? 그것은 삶의 質을 向上시키는 것인가? 改善이나 發展에 有益한 資料가 있는가? 이런 費用은 價値로 표시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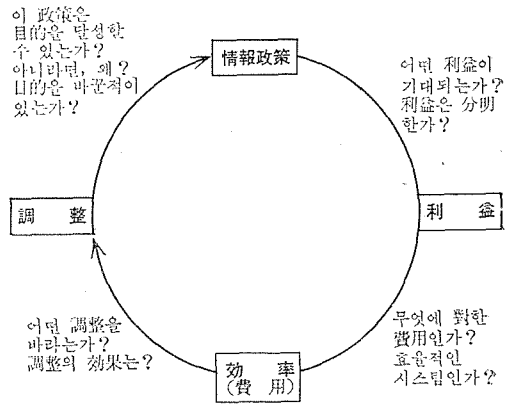
**B. 效果測定基準**

- 情報서서비스料는 다른 곳에 比하여 어떤가?
- 情報提供에 소요되는 時間은 다른 것에 比하여 어떤가? 과거에 걸린 時間은?
- 利用者는 다른 곳도 찾아 가는가? 간다면 서서비스料는?

**C. 特性·明細基準**

- 情報서서비스當局과 情報提供의 신속성 사이에 差異를 調整할 수 있는가?
- 資料/在庫의 利用頻度를 調査하고 있는가? 死藏되고 있는 것은 없는가?

圖式 2 : 測定基準을 利用하는 節次



**D. 管理·調整基準**

- 情報에 관한 共同政策이 있는가?
- 서어비스는 이 政策의 一般的인 要求를 充足시켜 주는가?
- 利用者 個人 個人은 만족한가?
- 실질 經費는 豫算額과 잘 맞는가?
- A,B,C의 基準을 適用할 때 經費 對 利益의 差額은 尙當하다고 보는가?
- 어떤 方向으로 進展하고 있는가?
- 職員의 發展을 위한 有用한 管理基準이 있는가.

위의 質問은 사실상 모두가 만약에 아니라면, 왜? 라는 單語가 追加될 수 있다. 이러한 基準은 거의가 客觀的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적중한데 대한 費用 등에서의 같이 너무 基準에 치우친 감이 있다. 等級順位 다는 가까운 對答이 잘못 이끌어 갈 不確實한 要素는 많지만 볼 파크(Ball Park)式 價値評價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實際의 經濟性 測定은 다음 두 가지 設問에 대한 答案에 달려 있다.

- 當機關은 情報서서비스 없이 運營이 可能한가? (또 政策目的을 成就할 수 있는가?)
- 當機關은 보다 規模가 크고 훌륭한 서어비스를 하기 위하여 豫算支出을 늘릴 수 있는가?

最終的으로 圓形으로 判斷基準의 利用課程을 再強調할 수 있다. 이것은 政策研究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뿐 아니라 全體의 要約이 一目瞭然한 圖式으로 表現될 수 있기 때문이다.